

중년기 주부의 가족관계향상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요구도 분석

Study on the Need for the Family Life Education among the Middle Aged Wives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김 명 자

강사 송 말 희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 : Myung Cha Kim

Lecturer : Mal Hee Song

● 목 차 ●

I. 문제제기

II. 이론적 고찰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IV. 결과 및 해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middle aged wives need for the family life education(FL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17 middle aged wives who's last child age over-18th.

1. The need for the FLE is indicated at the middle level, and we can see the strongest need of the being educated about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of the being educated about the wife itself, about the older parent relationship and about the spousal relationship by turn.
2. Wife's age, husband's age, duration of marriage, income, number of children, type of family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need for the family life education.
3. The middle aged wives want to educate about emotional control of leaving child, economic stability, teaching their child about value of marriage, and prevention and care of dementia.
4. This paper proposes that we should develop and execute not only the program of the FLE with respect to enough the need of the being educated, but also the programs of education about the grand parent role because of the increasing of the number of old aged people.

I. 문제제기

평균수명연장, 가족계획으로 인한 자녀수의 감소
와 자녀양육기간의 단축 등으로 개인적인 측면에서

중년기는 점차 장기화하고 있으며, 생활연령상 일반
적으로 40~59세를 중년기로 볼 때 사회적으로도 이
들 인구가 계속 증가하여 전체 인구중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¹⁾. 이들 중년층은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의 교량적 세대로 사회에서 핵심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와 국가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하여 중년기 개인의 삶과 생활이 개인적·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면서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중년기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사회의 근간인 가족 안에서 중년세대들은 위로는 생활의 제 영역에서 의존성이 증가하는 노부모세대에 대한 부양과, 아래로는 성인의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자녀세대에 대한 지원이라는 이중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세대간에 물질적·정서적 자원의 흐름을 조정하는 세대간 가족관계의 핵심 축이 된다. 그런데 우리의 가족상황에서는 자녀의 교육과 사회화에 대한 주임부와 노부모부양의 주수발자로서의 역할을 중년주부가 도맡아서 행하고 있는 실정²⁾이므로, 이 핵심축으로서의 역할이 중년주부의 역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중년주부들이 부양하는 노부모세대들은 해방이전 농업사회의 사회적 기반에서 성장하여 아직도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입각한 가족주의적 가치관을 지향하므로써, 권위주의적이며 가족원 개인보다는 집합주의적인 생활태도를 보인다.

또한 그들의 자녀세대들은 대부분 60년대 이후에 출생하여 서구식 교육을 받고 산업화과정이 진행되었던 시기에 성장한 신세대들로, 이들의 개성중시와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로 나타나기도 하며(이정우 외, 1996) 가족공동체의 유지보다는 개인의 욕구를 강조함으로써 가족의 제 기능수행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 세대간에서 가족의 유지와 통합을 책임지며 가족관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중년주부는 세대차이의 어려움과 함께, 그들을 둘러싼 가족관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한편 중년기 주부자신은 40년대에서 50년대 사이에 출생하여 사회적 격변기를 경험하면서 자란 세대로, 가부장적 가치의식과 노부모 부양의식이 비교적 강하며 자녀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경

제발전에 따른 생활안정 속에서도 자신들이 자라왔던 시기의 근검 절약이 몸에 배고 전통적인 여성상을 중시함으로써 자신을 위한 투자는 과감히 하지 못하며, 이미 오래 전에 학교교육을 끝마친 상태이므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정보가 생겨나고 그 새로운 정보를 생활에 적극 활용해야 하는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보화 시대에 가족과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가며 제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능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가족생활교육이 중년기 주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가족관계향상을 위한 중년기 주부들의 실제 교육욕구를 반영한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는 중년기 주부들이 가족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뿐 아니라, 자신과 부부의 밝은 미래를 계획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중년주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부부, 자녀·노부모세대 모두를 포함하는 가족전체를 기능적으로 이끌 것이며, 나아가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중년주부를 위한 가족생활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상으로한 가족생활교육에 관한 연구나 프로그램개발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며, 특히 샌드위치 세대로서 제 가족관계향상에 대한 그들의 실제 교육요구도를 근거로 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생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이전단계로 먼저 중년기 주부들의 가족생활교육에 관한 요구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년주부 자신뿐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노부모·부부·자녀관계향상을 위한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교육요구도를 분석하므로써, 세대관계 속에서 정서적인 역할을 도맡아하는 중년주부가 자신의 성장과 발전뿐 아니라 아내, 어머니, 며느리

1) 40세-59세 까지의 인구비율 변화: 80년 17%, 85년 17.9%, 90년 19.2%, 95년 21.2%, 통계청(1996), 인구 주택 및 총 조사보고서.

역할수행을 개선하기 위해 가족생활교육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아울러 그들이 다양한 역할을 보다 바람직하게 수행하기 위해 각 가족관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의 우선순위를 밝혀봄으로써, 중년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실제 가족생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하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인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중년기 가족관계의 특성

1) 중년기의 개인적 특성

중년기가 되면 개인적으로 인생의 유한성 인식, 시간전망이 축소, 내향성 증가 등을 경험하게 되며 기존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재정의와 자아에 대한 성찰이 증가하는 시기로(김명자, 1989), 급격한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변화 그리고 사회전반에 퍼져있는 젊은이 우선의 가치에 의해 중년남성들은 자신들의 지위에 대해 불안을 경험하면서 내적·외적 압력이 최고에 달하게 된다(Raluger & Kaluger, 1979). 한편 중년여성들은 자녀의 독립과 폐경이라는 생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종말과 새로운 시작에 따르는 상반된 감정으로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김명자, 1989). 그리하여 많은 심리학자들은 성적 변화, 정체감의 위기, 그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에 대한 불명확성 등으로 중년기가 청소년기와 비슷한 특성을 갖는다고 했다(Raluger & Kaluger, 1979). 이런 다양한 변화로 인해 중년기에 위기감을 경험하기도 해, 김애순과 윤진(1993)의 연구결과 10대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40대 초반의 전환기보다 자녀들의 연령이 25세 이후의 자녀성혼기인 50대 초반의 전환기에 더 높은 위기감을 나타내, 우리의 부모자녀관계가 비독립적이고 종속적이며 애착(情)이 미분화되어 있어 자녀들이 떠나가는 빈둥우리 시기에 위기감이 더욱 심각하게 표출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중년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명자

(1989)의 연구결과 중년남성의 경우 지난 생활에 대한 후회감, 인생이 지금보다 행복할 수 있을테데라는 생각, 주변 친구들이 중년기 공허감이나 허탈감을 경험하는 데서 위기감을 보이며, 중년여성들은 주변 친구들의 중년기 공허감이나 허탈감의 경험, 지난 생활에 대한 후회감,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섭섭한 마음, 우울하고 허전한 느낌 등에서 비교적 높은 위기감을 보였다. 한편 중년남성보다 중년여성인 더 높은 위기감을 보여,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이 가족문제 또는 사회문제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중년여성의 경우, 자녀양육역할감소로 증가된 자유감과 함께 잠재되어 있던 능력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역할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가족생활교육, 평생교육 등을 통해 중년기 주부들이 바람직한 역할을 설정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어 개인의 만족스런 생활뿐 아니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김명자(1991)는 다양한 생활사건을 경험하면서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수동적인 대처양식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중년기 남성과 여성 모두가 위기감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김애순(1993)도 위기감의 경험여부보다 위기를 어떻게 수용하고 해결해 나가는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면서 위기에 대한 개방적인 대처양식으로서, 새롭고 평범하지 않은 경험들을 불안감 없이 받아들이는 개방성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중년기의 위기경험이 부정적인 현상이 아니며 자신에 대한 풍부한 자각과 자신의 성숙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도록 돕는 가족생활교육을 통해 새로운 역할과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더 나아가 노년기를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년기 여성의 적응은 성역할 정체감, 내의 통제성, 자아개념 등의 성격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Lieblich, 1986; 김현화·조병은, 1992; 이길자, 1991; 김현순, 1994), 양성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거나 양성적인 사람들이 위기감을 적게 느끼며, 내적 통제적인 성격을 지닐 때, 자아개념이 긍정적이거나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중년기 여성들이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스

트레스나 위기감의 경험 그 자체보다, 그것들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와 자각, 그리고 자신에 대한 확신, 성역할 정체감 등의 성격특성이 중년기 주부의 생활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년기 이전의 발달단계부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사고와 양성성을 지향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과, 학문적으로도 중년기를 긍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중년기의 바람직한 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들의 교육요구도 분석을 위한 내용들로 중년기에 대한 긍정적 시각 고취, 자신의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자아존중감 신장시키기 등의 교육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리하여 중년주부들이 삶의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 불려가는(driven)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운전자(driver)가 되어 만족감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며(Havemann & Lahtinen, 1986), 중년기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여유와 자유감을 누릴 수 있는 시기(Kaluger & Kaluger, 1979)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2) 중년기 가족관계의 특성

많은 학자들이 중년기가 생애과정을 통해 부부간의 결혼만족도가 낮은 시기라고 했다(Spanier, Lewis & Coles, 1975; Lupri & Friders, 1981; 서동인·정현숙, 1994). 그 원인으로 Lasswell과 Lasswell (1982)은 자녀가 성장해 가정을 떠나게 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꿈, 희망 등을 서로 배우자 탓으로 돌리려하고 때로는 나머지 생을 새롭게 시작하곤 욕구가 서로에게 생기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송정아(1996b)는 중년기 남편들의 목표달성에 대한 초조감, 시간에 대한 압박감 등의 일에 대한 불투성향이 아내와 함께 할 시간을 감소시키고 그에 따른 대화부족으로 부부간에 위기를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중년기에 접어들면 성역할에서 변화가 일어나 남성은 수동적이고 양육적이 되며 여성은 보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자기주장적이 되어 양쪽이 모두 성역할 의식을 재편성하지 않는 한 부부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김예순, 1983). 또한

자녀의 성장과 독립은 일상적인 가정 내 역할의 재편성을 불가피하게 하며 여가시간의 증대를 가져와 중년주부는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여 가정 밖의 새로운 활동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때 남편이 기존의 부부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면 가족문제를 야기하게 되고(김명자, 1992) 더 나아가 요사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황혼이혼으로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다른 어느 발달단계보다도 관계가 소원하고 다분히 문제를 안고 있는 중년기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차이를 인정하며 상대의 입장이 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융통성 있는 성역할 태도와 헌신 그리고 효과적인 대화 등이 포함된 가족생활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족생활교육을 통해 부부가 서로 자신과 부부생활을 재평가함으로써 부부간의 역기능적 요소를 제거하고 부부의 잠재적 가능성을 발견하여 보다 활기차고 윤택한 부부관계를 지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년기는 가족생활에 대한 기대와 관점이 상이한 노부모세대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자녀세대의 중간에 위치하므로 '샌드위치 세대(sandwich generation)', '협공받는 세대(caught generation)', '사이세대(In-between)' 등으로 표현된다. 성인자녀들은 부모세대와 교육수준, 자라온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른데서 기인한 가치관의 차이로 부모의 권위와 전통적 가치에 의문을 제기해오며, 또한 자신들의 미래생활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므로 부모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게 되어 중년기 부모를 실망감에 빠지게 한다. 또한 노부모들은 직계가족을 이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가족주의 의식을 지님으로써 자녀와의 유대감을 여전히 중시하고 연장자로서의 권위의식을 가지면서 자녀에게 의존적이 되어 중년기 부부에게 과중한 책임을 안겨다 준다(김재은, 1974). 한편 사회일반에 잔존하는 전통적인 효사상은 노부모부양을 전적으로 자녀에게 책임지움으로써 노부모부양의 주수발자인 중년주부들은 노부모부양에 따른 부담감을 보고하고 있다(이신숙·서병숙 1994; 성미애, 1991; 이윤정, 1994). 이렇듯 중년세대는 노부모와 자녀의 기대와

요구 사이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신의 욕구사이에서 선택의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Wise & Murry, 1987). 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은퇴를 앞둔 중년세대는 노부모의 의존적인 경제적 욕구와 자녀에 대한 책임감, 자신의 노후를 위한 재정적 목표사이에서 투쟁해야만 하며, 특히 현대사회에서 자녀교육기간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 자녀들의 재정적 의존기간은 더욱 장기화되어 중년세대의 은퇴후의 생활에 많은 제약은 가져오게 된다(Junk, Stenberg & Anderson, 1993). 이렇듯 상하세대의 同時인 요구 사이에서 중년세대들은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세대간의 두터운 벽을 실감하게 된다. 그러나 상하세대속에서 중년기 주부가 스트레스나 부담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만을 느끼는 것은 아니어서, Alam (1978)은 중년세대가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세대차이, 간섭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는 하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부모와 중년자녀들은 상대방부터 서로 많은 이득을 얻으며 서로가 각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사람임이 틀림없다고 했다. Brody(1985) 역시 중년의 자녀들이 노부모가 의존적이 되는 것을 서서히 받아들여지게 되고 노부모는 중년자녀에게 의존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하게 의존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므로 노부모와 중년자녀간의 의존/독립의 미묘한 조화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했다. 또한 김명자(1992)의 연구에서도 중년기 주부의 노부모부양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높은 경우에 복지감 수준도 높게 나타나, 중년기 주부가 노부모부양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그에 따르는 보상감을 얻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자녀의 존재가 중년주부에게 스트레스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노부모를 부양하는 중년주부에게 있어 동거자녀는 중년주부의 우울과 긴장감을 낮추며 중년주부와 노부모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므로써, 동거자녀의 존재와 수는 중년주부의 행복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했으며(Stull, Bowman & Smerglia, 1994), 장상희(1988) 역시 중년주부에게 자녀양육과 사회화역할은 주역할로서, 이를 통해 자아

정체감 및 심리적 보상을 얻을 수 있어 오히려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했다. 또한 박경숙(1993)은 중년기 여성이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이 모두 높은 가족에 속할 때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주의가 바탕에 깔린 우리 나라의 가족생활에서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이 가족자원으로서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므로 세대간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세대차이를 수용하며 서로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지니도록 하는 가족생활교육은 세대간의 가족관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행하는 중년기 주부를 위해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가족생활교육을 통해 중년주부들은 성인자녀를 인격체로 존중해주며 날로 약화되는 부모자녀간의 신뢰를 재 구축하고, 노화과정을 이해하며 노인의 심리를 배울 기회를 가짐으로써 권위와 복종의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존중과 격려의 부모자녀관계를 이룩하고, 노부모를 고유한 인생항로를 지닌 한 개인으로 인정하면서 자식된 의무감으로서가 아니라 성숙기의 효성의 발로로 노부모를 모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중년기 주부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가족원간의 응집력을 향상시켜 통합된 가족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중년기 주부를 위한 가족생활교육은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제 문제를 해결해 줄뿐 아니라 가족원 전체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주게 되므로 이를 위한 연구가 시급히 요청되는 바이다.

2. 중년기 주부를 위한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과 관련연구

공업화, 도시화 등의 사회변화와 이에 대처하는 가족의 부적합성 때문에 1890년경에 미국에서 시작된 가족생활교육은(유영주·오윤자, 1994), 60년대 이후의 산업화에 따라 핵가족화와 인구의 도시 집중화, 가부장권의 약화, 여성역할의 확대, 부부관계의 평등화, 며느리 우위의 고부관계로의 변화 등의 가족의 제 측면에 변화를 가져와, 부부의 역할갈등, 부부간의 자녀양육의 문제, 노인들의 무기력과 소외

등의 심각한 가족문제를 안게 된 우리 나라에서도 그 필요성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노부모와의 관계라는 가족관계의 제 유형에서 핵심역할을 도맡아하면서 상호세대간의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중년 주부를 위한 가족생활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중년주부는 이미 오래 전에 학교교육이 끝난 상태로, Raluger와 Kaulger(1979)는 정규적인 학교교육만으로 교육이 끝난 중년기는 정신력의 황폐화가 급속히 나타나기 쉬운 반면, 이 시기에 학교 제도 이외의 활동이나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정신력의 성장뿐 아니라 중년기 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다고 하여 중년기후의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최진복(1988)은 사회변화에 따른 가정주부의 역할변화, 자녀수의 감소와 양육기간의 단축으로 주부의 여가시간이 증가하며 여성의 자아실현의 욕구가 증시되면서, 가족생활주기 각 단계별로 기대되는 새로운 역할을 습득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개인적 욕구충족을 위해 주부들을 위한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연구들이 중년기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하고는 있지만(김명자, 1986; 장하경·서병숙, 1992; 왕석순·서병숙, 1995; 송정아, 1996b) 실제로 중년주부를 대상으로 한 가족생활교육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예창명(1996)의 중년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족생활교육 요구도분석과, 중년기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송정아(1996a)의 연구, 그리고 홍숙자와 이형실, 전길양의 성인자녀를 위한 노인부양 교육프로그램(1995)과 중년머느리를 위한 고부관계향상 교육프로그램(1996) 등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가족생활교육에 관한 연구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중년기주부대상의 연구들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우리 나라에서 가족생활교육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부터이다. 유영주와 오윤자(1990, 1994)는 부부교육을 중심으로 현대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하였고, 한국 부부관계향상에 적합한 프로그램 모형을 제시하고 프로그램의 실시

를 위한 단계적인 지침을 제시하였다.

또한 오윤자(1994)는 한국과 미국의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비교하는 한편 한국가족에서의 부부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5단계로 이루어지는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나 실시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송정아(1996a)는 이전의 연구들이 모든 연령대의 부부를 대상으로 했었던 것에서 벗어나 중년기 부부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실제로 8쌍의 부부에게 실시하고 그 효용성을 평가한 결과, 의사소통, 갈등대처기술, 가치관의 차이 인정, 배우자 존중, 성생활 영역에서 프로그램의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창명(1996)은 중년기주부중 특히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서 가족생활전반에 대한 가족생활 교육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주부의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가족생활교육 요구도가 비교적 높음을 보고하였으며, 부모자녀관계와 건강영역에서 4점 만점에 3.50점을 나타내 가장 높은 교육요구도를 보여, 중년기 주부에게 있어 자녀가 여전히 제일의 관심사이며 아울러 현재 신체적인 노화를 경험하면서 곧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생활교육의 연구영역은 점차 확대되어 고부관계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 연구들과(홍숙자·이형실·전길양, 1995, 1996; 이정연·정혜정·장진경, 1996) 실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성인자녀들을 위한 부양가족 교육프로그램개발연구와(홍숙자, 1995) 부모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들도(윤명선, 1991; 연미희, 1994) 발표되었다. 최근에는 프로그램개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시한 후 평가로 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송정아, 1996a; 홍숙자, 1995; 홍숙자·이형실·전길양, 1995, 1996). 한편 일반노인에 비해 일상적 활동이나 기능이 저하되어 과중한 보호와 도움을 요구하는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노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개발도(김태현·전길양, 1996) 이루어져 가족문제 방지 차원에서뿐 아니라 가족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

을 주기 위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가족생활주기나, 자녀의 연령, 사회계층 또는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 등에 따라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상이하므로, 앞으로의 가족생활교육은 대상을 좀 더 세분화하여 그들의 실제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함으로써 교육대상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해결과 생활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세대간의 문제해결과 가족전체의 정서적 복지 향상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년주부를 대상으로 제 가족관계향상을 위한 교육요구도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중년세대를 중심으로 삼세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를 통해 가족간의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듯이(Wise & Vurry, 1987) 가족주의 가치관이 아직도 잔존하는 우리 나라 가족관계의 특성상 이를 위한 노력이 더욱 더 요청되는 바이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중년기 주부의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요구도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중년주부의 가족생활교육 요구도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3.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노부모와의 관계 등 각 가족관계향상을 위해 중년기 주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은 무엇인가?

2. 연구대상 및 절차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중년기를 생활연령 상으로 대체로 40-59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김명

자, 1989; 송정아, 1996b; 예창명, 1996). 그러나 이 연령범위안에서도 자녀가 아직 중등교육기에 속해 있으면 우리사회의 과열교육풍토에 의해 가족의 제 기능이 마비되고, 특히 자녀에 대해 일차적인 의무를 띠고 있는 주부들로서는 오로지 자녀의 진학지도에만 몰두하게 되므로, 삼세대 가족관계 전반에 대한 중년기 주부들의 진정한 교육요구도를 측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막내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어머니로서의 일차적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17)

변 인	집 단	빈 도 (%)
부인 연령	40대	108 (34.1)
	50대	209 (65.9)
남편 연령	40대	39 (12.3)
	50대	200 (63.1)
	60대	78 (24.6)
결혼지속 연수	25년 이하	143 (45.1)
	26-30년	90 (28.4)
	31년 이상	84 (26.5)
부인 학력	중졸 이하	66 (20.8)
	고졸	132 (41.6)
	대졸 이상	119 (37.5)
남편 학력	고졸 이하	112 (35.3)
	대졸	151 (47.6)
	대학원졸	54 (17.0)
부인의 직업	유 부	78 (24.6) 239 (75.4)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
201-300만원		97 (30.6)
301-400만원		59 (18.6)
400만원 이상		79 (24.9)
자녀수	2명 이하	158 (49.8)
	3명	108 (34.1)
	4명 이상	51 (16.1)
노부모 동거여부	동거	66 (20.8)
	비동거	251 (79.2)
가족생활 교육참여 경험여부	비참여	268 (84.5)
	참여	49 (15.5)

인 임무를 끝낸 후 어느 정도 생활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가족관계 전반에 대한 교육요구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막내자녀가 고졸 이상의 연령(18세 이상)이며, 만 60세 미만인 중년주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가족관계의 세 측면을 동시에 분석하기 위해 양가 부모들중 1명 이상 노부모가 살아 계시는 중년주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연구대상을 전국에서 의도적으로 추출하였다. 먼저 중년주부 1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1997년 7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50부를 배부하여 382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불충분한 것을 제외한 317부 만을 본 연구의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의 선정 및 자료분석

가족생활향상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요구도를 측정

하기 위한 도구는 여러 학자들의 중년기 발달과업을 고찰한 후(유영주·이순형·홍숙자, 1995; 장휘숙, 1997; Papalia & Olds, 1995; Wilfrid & Zender, 1983 등) 특히 가족관계향상에 중점을 두어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노부모와의 관계로 구성하였으며, 중년주부 자신을 위한 교육내용을 첨가하여 본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형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각 관계별로 가장 듣고 싶은 교육내용의 문항번호를 한가지씩 기입토록 하여 중년주부들이 각 관계에서 가장 듣고 싶은 교육내용중 상위 3위의 우선순위를 살펴보았다. 측정도구의 척도별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자료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해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였고, 차이검증을 위하여 t-test, F-test를 실시하였다.

<표 2> 척도별 신뢰도

가족관계	하위요인	문항수	Cronbach's α
가족관계향상을 위한 교육요구도	1. 미래생활계획	8	.83
	2. 중년기변화의 수용 및 적응	5	.78
	전 체	13	.88
부부관계	1. 부부관계 재조직	5	.79
	2. 배우자에 대한 이해증진	4	.80
	3. 애정·감정표현 증진	4	.79
	4. 노후생활준비	3	.69
전 체	16	.90	
자녀와의 관계	1. 일상생활지도와 자녀와의 바람직한 대화방법	8	.87
	2. 자녀의 객관적 인정과 심리적 독립수용	4	.79
	3. 자녀와의 세대 차 극복	4	.81
	4. 자녀의 취업, 결혼 등의 미래 생활지도	4	.82
	5. 새로운 가족성원과의 관계 향상	4	.84
전 체	24	.94	
노부모와의 관계	1. 노부모와의 심리적인 유대 강화	11	.92
	2. 노부모의 생활향상을 위한 노력자역할	6	.86
전 체	17	.93	

IV. 결과 및 해석

1. 중년기 주부의 가족관계향상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요구도의 일반적 경향

연구문제1의 가족생활 교육요구도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 본 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중년기 주부의 가족생활 향상을 위한 교육요구도는 4영역 모두에서 4점 리커트척도상 2점 이상을 나타내 비교적 중정도의 요구도를 보였다. 가족관계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자녀와의 관계향상을 위한 내용에 대해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였으며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내용에서 가장 낮은 교육요구도를 보였다. 이는 중년여성이 여러 관심사중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가장 높게 나타낸다는 공선영(1993)과 예창명(1996)의 연구결과와,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발달한 이후에 자신의 발달단계에 따른 문제와 노부모의 의존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는 윤진(199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렇듯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년기 주부들이 여전히 어머니 역할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은, 부모됨과 부모역할을 강조하는 여성성강화의 사회화과정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인 부부관계의 재조직과 상호 이해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뿐 아니라 이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자녀수의 감소로 인해 부부 둘만이 남는 시기가 점점 길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점을 그대로 방치하면 부부간에 커다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결국 황혼이혼을 부추기게 될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중년기뿐만 아니라 가족생

활주기 전 단계를 대상으로 하는 부부 또는 부모를 위한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에서 가족관계의 핵심은 부부관계임을 강조하여 애정에 기초한 동등한 부부관계가 가족관계의 핵심으로 자리잡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지금까지의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지나친 집착과 의존에서 벗어나 보다 성숙한 부모자녀관계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표 4>,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내용 중에서는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요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애정·감정표현증진 요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 중년부부는 감정적인 유대보다는 다가올 노후의 안정에 더 많은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녀와의 관계향상을 위한 교육내용 하위요인들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자녀의 취업, 결혼 등의 미래생활지도 요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 이 시기가 자녀가 직장 또는 결혼 등 새로운 생활로 전환을 맞는 시기이므로 자녀의 새로운 출발에 대해 관심과 염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 어머니의 당연한 역할로 여겨지기 때문이며, 이는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자녀우선의 어머니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해보면 성인자녀를 둔 중년기 주부는 개인적으로는 중년기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과 부부간에는 곧 다가올 노년기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준비를 위한 교육에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자녀의 미래를 위한 교육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살아 계시는 노부모와 만족스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노부모의 생활향상을 위한 조력자 역할에 대한 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표 3> 중년기주부의 가족관계에 대한 교육요구도

교육 요구도	주부자신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노부모와의 관계		F = 18.21***
	M	SD	M	SD	M	SD	M	SD	
	2.61	.55	2.43	.52	2.76	.56	2.59	.60	
Duncan	B		A		C		B		

4점 만점 ***: p<.001

〈표 4〉 중년기 주부의 가족생활교육 요구도의 일반적 경향

	가족관계	하 위 요 인	M	SD	t 및 F검증
가족 관계 향상 을 위한 교육 요구 도	주부자신	1. 미래생활계획	2.59	.58	
		2. 중년기변화의 수용 및 적응	2.64	.61	
		전 체	2.61	.55	t = -1.15
	부부관계	1. 부부관계 재조직	2.36	.58	AB
		2. 배우자에 대한 이해증진	2.46	.61	B
		3. 애정·감정표현 증진	2.28	.65	A
		4. 노후생활준비	2.70	.70	C
		전 체	2.43	.52	F = 24.37***
	자녀와의 관계	1. 일상생활지도와 자녀와의 바람직한 대화방법	2.75	.62	B
		2. 자녀의 객관적 인정과 심리적 독립수용	2.67	.69	AB
		3. 자녀와의 세대 차 극복	2.59	.66	A
		4. 자녀의 취업, 결혼 등의 미래생활지도	3.03	.70	C
5. 새로운 가족성원과의 관계 향상		2.61	.72	AB	
	전 체	2.76	.56	F = 20.85***	
노부모와의 관계	1. 노부모와의 심리적인 유대 강화	2.59	.63		
	2. 노부모의 생활향상을 위한 노력자역할	2.59	.65		
	전 체	2.59	.60	t = -.11	

***: $p < .001$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중년기 주부의 가족생활교육 요구도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중년주부의 가족생활향상을 위한 교육요구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아내의 연령에 따라서는 주부자신과 노부모와의 관계향상을 위한 교육요구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p < .05$, $p < .001$) 50대주부가 이들 영역에서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부가 50대가 되면 자녀가 대부분 독립하거나 출가하게 되어 지금까지 제일의 역할이었던 어머니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아울러 이 시기에는 노부모가 평균 70세 이상이 되어 여러 면에서 더욱 더 중년세대에게 의존하게 되므로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욱 크게 됨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남편의 연령에 따라서는 네 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남편이 60세를 넘어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은퇴에 따른 부부관계의 재조직의 필요성과 함께 자녀들의 독립에 따른 빈둥

우리시기로의 전환에 따른 어려움, 더욱 더 의존적이 되는 노부모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등으로 가족관계의 재 측면의 향상을 위해 교육의 필요성을 더 깊이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지속연수와 자녀수,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서는 노부모와의 관계향상을 위한 교육요구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p < .01$, $p < .05$, $p < .05$) 결혼지속연수가 길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노부모와의 관계향상을 위한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부모와 동거하는 주부가 동거하지 않는 주부보다 교육요구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노부모와의 일상생활속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와 노부모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필요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월평균수입에 따라서는 부부관계와 노부모와의 관계향상을 위한 교육요구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p < .01$, $p < .01$) 월평균수입이 가장 낮은 200만원이하의 집단이 가장 높은 교육요구도를 보였는데, 이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므로 생활 속에서 실제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표 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생활교육 요구도

변인		구분		교육 요구도							
				주부자신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노부모와의 관계	
		M	D	M	D	M	D	M	D		
아내 연령	40대	2.53		2.36		2.69		2.43			
	50대	2.65		2.46		2.79		2.67			
	t값	-1.98*		-1.59		-1.50		-3.45***			
남편 연령	40대	2.40	A	2.29	A	2.53	A	2.33	A		
	50대	2.59	B	2.41	A	2.78	B	2.55	B		
	60대	2.75	C	2.53	B	2.82	B	2.81	C		
F값	5.66**		3.04*		3.90*		9.72***				
결혼 지속 연수	25년이하	2.59		2.43		2.76		2.49	A		
	26-30년	2.55		2.39		2.73		2.61	A		
	31년이상	2.69		2.47		2.78		2.73	B		
F값	1.48		.49		.16		4.35**				
부인 학력	중졸이하	2.52		2.43		2.75		2.65			
	고졸	2.62		2.46		2.72		2.59			
	대졸이상	2.64		2.39		2.80		2.55			
F값	1.13		.64		.73		.63				
남편 학력	고졸이하	2.58		2.49		2.77		2.67			
	대졸	2.64		2.40		2.75		2.52			
	대학원졸	2.59		2.36		2.75		2.61			
F값	.37		1.36		.05		2.14				
부인 직업	유	2.69		2.42		2.72		2.59			
	무	2.58		2.43		2.77		2.59			
	t값	1.56		-.04		-.67		-.05			
월 평균 수입	200만원이하	2.66		2.58	B	2.82		2.71	B		
	201-300만원	2.62		2.41	A	2.78		2.63	B		
	301-400만원	2.65		2.43	A	2.71		2.62	B		
401만원이상	2.51		2.28	A	2.71		2.39	A			
F값	1.24		4.54**		.72		4.40**				
자녀 수	2명이하	2.60		2.43		2.75		2.53	A		
	3명	2.61		2.43		2.74		2.58	A		
	4명이상	2.62		2.43		2.80		2.81	B		
F값	.01		.01		.14		4.32*				
부모 동거	동거	2.65		2.43		2.77		2.72			
	비동거	2.60		2.43		2.75		2.56			
	t값	.74		-.36		-.49		1.97*			
교육 참가 여부	비참여	2.61		2.43		2.74		2.57			
	참여	2.63		2.41		2.87		2.71			
	t값	-.28		.18		-1.58		-1.53			

* : P<.05 ** : P<.01 *** : P<.001

필요성을 깊이 느끼는 것으로 여겨진다. 부인의 학력, 직업유무, 교육프로그램의 참여여부, 남편의 학력에 따라서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중년기 주부의 가족관계향상을 위한 교육요구도의 우선순위

연구문제3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대상자들에게 각 관계별로 가장 참가하고 싶은 교육내용의 분항을 하나씩 기입하게 한 결과 각 관계에서 상위 3위의 교육내용은 <표 6>과 같다. 먼저 주부자신을 위한 교육내용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문항은 자녀독립시

<표 6> 교육요구도의 우선순위(상위3위)

가족 관계 우선 순위	주부자신(N=263)	
	문항내용	%
1위	어머니역할상실에 따른 정서적 대처	16.0
2위	취미·여가생활의 새로운 시작	10.3
3위	중년기의 심리적·사회적 변화의 수용과 적응	9.1
가족 관계 우선 순위	부부관계(N=252)	
	문항내용	%
1위	노후의 경제적 안정	22.1
2위	늘어나는 배우자와 새로운 관계맺기	11.6
3위	자신 또는 배우자의 노화에 대한 심리적 준비	8.9
가족 관계 우선 순위	자녀와의 관계(N=231)	
	문항내용	%
1위	자녀에게 올바른 결혼관을 심어 주기 위한 어머니의 역할	10.1
	새로운 가족원과 바람직한 관계맺기	10.4
2위	자녀와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10.0
3위	자녀의 적성에 알맞는 직업선택 지도	9.1
가족 관계 우선 순위	노부모와의 관계(N=223)	
	문항내용	%
1위	치매예방과 간호법	26.5
2위	노부모와의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8.1
3위	노부모의 바람직한 조부모역할수행을 위해 중간세대로서 해야할 역할	6.7

의 정서적 대처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우리 나라의 어머니들에게 자녀가 가장 중요한 존재로서 자녀와의 분리로 상실감이나 소외감을 경험하게되어 자신의 정체감에 혼동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2위는 여가생활의 새로운 시작을 도와주는 내용을 꼽았는데, 이는 지금까지 어머니 역할에 얽매어 자신만을 위한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활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개인적으로 중년기 주부들은 자녀가 떠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그런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중년기 주부 개인을 위해서는 어머니 역할상실을 극복하고, 개인의 복지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부부관계향상을 위해서는 노후의 경제적 안정에 대한 내용에 가장 두드러진 관심을 보였다. 이는 중년주부들의 남편이 현재 은퇴전·후에 속하는 시기로, 발달단계상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우리사회에서도 이제는 노후의 경제적 문제를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려는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자녀와의 관계향상을 위한 교육내용에선 올바른 결혼관을 심어주기 위한 어머니의 역할과, 새로운 가족원과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내용에 가장 많은 관심을 나타내, 자녀들의 결혼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엿볼 수 있으며, 자녀의 결혼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자녀가족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갈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출가자녀가 한명 이상이라도 있는 중년주부들의 경우 새로운 가족원과 바람직한 관계맺기에 관한 비율이 더 높아져 19.8%를 나타내면서 1위를(N=124), 2위는 손자녀와의 관계증진을 위한 내용을 꼽고 있어 평균수명연장에 의해 과거에 비해 손자녀와 함께 할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게 될수록 바람직한 조부모 역할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중년기 주부들을 대상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자녀의 연령이나 위

치를 세밀하게 고려하여 개발·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앞으로는 중·노년세대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조부모역할수행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시급히 개발·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노부모와의 관계향상을 위한 교육내용에서는 응답자의 1/4 이상이 치매예방과 간호법에 관한 문항을 1순위로 꼽았는데, 이는 노부모의 치매로 자신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거나 앞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자신들이 노후에 치매로 고생할 것인지에 대한 불안, 염려 등과 아울러 자녀 세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복잡한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종합해보면 성인자녀를 둔 중년주부들은 자녀들의 독립에 따른 어머니로서의 역할상실에 대한 불안감을 지니고 있지만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적응하는데 높은 관심을 보여 여전히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으며, 연령증가에 따른 자신과 배우자의 제 측면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부부관계를 재편성하고, 노부모세대를 통해서 곧 다가올 자신들의 노후를 계획하고 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년기 주부를 위한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것은 그들의 현실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으로서 중년주부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전체의 복지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실제 프로그램개발시 제 가족관계중 한 가족관계만의 향상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아내역할 프로그램, 바람직한 어머니 또는 며느리 역할수행 프로그램 등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각 가족관계향상을 위해 두드러진 관심을 보인 교육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것은, 중년주부들이 가족관계를 폭넓게 이해하고 세대간의 갈등이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족관계속에서 세대간에 중추적 역할

을 수행하는 중년기 주부를 대상으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각 가족관계에 대해 가족생활교육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므로써, 중년주부들의 욕구에 기초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조사대상의 선정의 어려움 때문에 최종분석 사례수가 적어 일반화에 다소 문제가 있는 점과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킨 중년기 주부들의 사례수가 적어 빈동우리 시기에 속해있는 중년기 주부의 교육요구도를 함께 비교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 주부의 가족관계향상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요구도는 자녀와의 관계향상을 위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주부자신, 노부모와의 관계, 마지막으로 부부관계의 순서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요구도는 아내의 연령, 남편의 연령, 결혼지속연수, 월평균 수입, 자녀수, 노부모와의 동거여부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중년주부는 주부자신을 위한 교육내용중에서는 어머니 역할상실에 따른 정서적 대처에 관한 내용을 부부관계에서는 노후의 경제적 안정에 관한 내용을,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자녀에게 올바른 결혼관을 심어주기 위한 어머니 역할과 새로운 가족원과 바람직한 관계맺기에 관한 내용을, 노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치매예방과 간호법에 관한 내용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생활연령에 의해 중년기에 똑같이 속한다 할지라도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특히 막내자녀의 연령 또는 독립·출가여부, 노부모와의 동거여부 등에 의해 주부의 가족생활에 관한 교육요구도가 차이를 보이므로 교육대상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차별적으로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대상들의 욕구가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러 가족관계중 하나의 관계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교육도 그 의미가 있겠으나, 중년세대는 가족관계에서 세대간의 핵심축의 역할을 하므로 본 연구결과 각 관계에서 높은 요구도를 보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삼세대간의 관계를 조망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실시함으로써 중년세대들의 역할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족원간의 통합을 이루는데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여러 기관에서 대부분 이론적인 체계가 결여된 채 대항강좌 또는 상담중심의 교양교육으로 가족생활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교육대상자들의 실제적이고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생활교육을 전문적으로 다룬 교육자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또한 중년기 주부들이 조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는 조부모로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게 되므로 바람직한 조부모 상을 위한 교육이 중년기와 노년기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가족생활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아무리 높다고 하여도 교육프로그램의 실시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교육기회의 제한성이나 불평등의 문제를 낳게 되므로, 정부가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책적인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을 확충함으로써 원하는 모든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공선영(1993). 중년주부의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 2) 김명자(1986). 중년기부인의 심리적 위기감과외의 관련변인 고찰. 숙대 논문집, 27, 415-454.
- 3) 김명자(1989). 중년기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대 박사학위논문.
- 4) 김명자(1991). 중년기 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과 위기감. 대한가정학회지, 29(1) 203-216.
- 5) 김명자(1992). 중년기연구. 교문사.
- 6) 김애순·윤진(1993). 중년기 위기감(1): 그 시기 확인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3(1), 1-16.
- 7) 김애순(1993). 중년기 위기감(3): 개방성향과 직업, 결혼, 자녀관계가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3(2), 1-14.
- 8) 김재은(1974). 한국가족의 심리. 이대출판부.
- 9) 김태현·전길양(1996). 치매노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77-96.
- 10) 김현화·조병은(1992). 성격특성에 따른 중년기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207-228.
- 11) 박경숙(1993).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중년기 여성이 인지한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1), 121-135.
- 12) 서동인·정현숙(1994).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가족의 부부관계. 한국도시 가족의 부부문제 연구.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개소1주년기념 학술세미나 연구보고서, 2-38.
- 13) 송정아(1996a). 중년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13-131.
- 14) 송정아(1996b). 사회심리적 변인에 의한 중년기 부부의 위기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1), 79-92.
- 15) 예창명(1996). 중년기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족생활교육 요구도 분석. 숙대 석사학위논문.
- 16) 오윤자(1992). 가족생활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209-232.
- 17) 오윤자(1994). 가족생활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 18) 오윤자·유영주(1994).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204-219.
- 19) 옥선화·이기춘·이기영·이순·공인숙(1991).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 40대 중산층 주부가 지각한 가정생활의 제문제. 대한가정학회지, 29(2), 135-154.
- 20) 왕석순·서병숙(1995). 중년기 적응연구에 대한 문헌고찰. 한국노년학, 15(1), 54-73.

- 21) 유영주·오윤자(1990). 가족생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1).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49-68.
- 22) 유영주·오윤자(1994).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권2호, 205-218.
- 23) 윤진(1993). 성인·노인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24) 이정우 외 7명(1996). 신세대 기혼남녀의 라이프스타일 및 가정경영의식. 대한가정학회지, 34(6) 367-386.
- 25) 장상희(1988). 도시 중년주부의 역할부재와 아노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2집 여름호, 66-89.
- 26) 장희숙(1997). 가족심리학. 박영사.
- 27) 최진복(1988). 가정생활내용을 중심으로한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 28) 홍숙자(1995). 노부모 부양가족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47-57.
- 29) 홍숙자·유은희·전길양(1995). 성인자녀를 위한 노인부양 교육프로그램. 대한가정학회지, 33(5), 197-209.
- 30) 홍숙자·유은희·전길양(1996). 중년며느리를 위한 고부관계향상 교육프로그램. 대한가정학회지, 34(5), 293-306.
- 31) 통계청(1996). 인구 주택 및 총 조사보고서.
- 32) Alam, S. E. (1978). The Aging Parent and The Adult Child, J of Home Economics, Fall 26-28.
- 33) Brody, E. M. (1985). Parent Care as a Normative Family Stress, The Gerontologist, 25(1), 19-29.
- 34) Ernest Havemann & Marlene Lehtinen(1986). Marriage and Families: New problem and Opportunities, Prentice-Hall.
- 35) George Raluger & Meriem Fair Kaluger(1979). Human Development: the Span of Life, 2th, ed.
- 36) Junk, V. W., Laurie A. Stenberg, & Carol A. Anderson(1993). Retirement Planning for the Sandwich Generation. J of Home Economics, spring, 4-11.
- 37) Lasswell, M. & Lassell, T(1982). Marriage and the Family. D.C. Health and Company, Lexington, Mass.
- 38) Lieblich, A.(1986). Successful Career Women at Midlife: Crisis and Trans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3(4), 301-312.
- 39) Lupri, E. & J. Friders(1981). The Quality of Marriage and the Passage of Time: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Canadian J of Sociology, 6(3), 283-305.
- 40) Papalia, D.E., & Sally Wendkos Olds(1995). Human Development, McGraw-Hill, Inc.
- 41) Sheilla Mammen & Gregory Sanders(1992). The Elderly, Family, and Society: Intergenerational Inequity?. J of Home Economics, winter, 46-51.
- 42) Spanier, G. B., R. A. Lewis & C. L. Coles(1975). Marital Adjustment over the Family life cycle: The Issue of Curvilinearity.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 263-275.
- 43) Stull, D. E., Karen Bowman & Virginia Smerglia(1994). Women in the Middle: A Myth in the Making?. J of Family Relations, 43, 319-324.
- 44) Wise, G. W. & Velma McBride Murry(1987). The Empty Nest: The Silent Invasion on Two Fronts, J of Home Economics, spring, 49-53.
- 45) Wilfrid, J. & Vander Zander(1993). Human Development, McGraw-Hill, Inc.